



큰달맞이꽃 / *Oenothera erythrosepala* Borbas

| 구분 | 설명 |
|------|-------|
| 생물분류 | 식물 |
| 속국명 | 달맞이꽃속 |
| 과국명 | 바늘꽃과 |

| | |
|------|---|
| 과명 | Onagraceae |
| 일반특징 | <p>요약설명 : 바늘꽃과 월년생 초본으로 귀화식물이며 전국 각지에 분포한다. 분포지역 : 귀화식물로 각지에 야생한다.</p> <p>형태 : 월년생 초본 크기 : 높이 1.5m이다. 꽃색 : 노란색 개화기 : 7월</p> <p>잎은 어긋나고 타원 같은 창 모양이다. 가장자리에 얇은 톱니가 있다. 뿌리에서 난 잎은 거꿀피침모양이고 우산살 모양으로 퍼진다. 꽃은 7월에 노란색으로 피고 가지 끝과 원줄기 끝에 달린다. 밤에 피었다가 아침에 지며 꽃 밑에 꽃을 보호하는 작은 녹색 잎 2개가 달려 있다. 4개의 꽃받침조각은 2개씩 붙어 있는데, 꽃이 필 때 뒤로 젖혀진다. 꽃잎은 4개이고 끝이 파여 있다. 수술은 8개이고 암술대는 4개로 갈라지며 씨방은 꽃받침 밑에 있다.</p> <p>열매는 삭과고 털이 있으며 익은 다음 4개로 갈라져 씨앗이 나온다. 줄기는 곧게 서며 가지가 갈라진다. 뿌리는 굵고, 가운데에 튼튼한 원뿌리가 있다.</p> <p>길가, 산과 들의 빈 땅, 밭둑의 양지 등 각처에서 자란다. 씨앗으로 번식한다. 두해살이풀이라는 점, 잎이 거꿀피침모양이라는 점, 삭과에 털이 없는 것 등이 달맞이꽃과의 차이점이다.</p> |